

슬픔과 공존하는 자유의 초상

다큐멘터리 작가 김예경씨가 뽑은 김수영 시선집 《거대한 뿌리》

다큐멘터리 작가 김예경씨(42)가 서가에서 꺼내놓은 책은 김수영 시선집 《거대한 뿌리》(민음사)다. 표지는 낡을 대로 낡았고 낡은 책에서 말할 수 있는 귀중한 냄새가 난다. 그가 이 책을 읽은 건 1981년이다. 20년도 넘은 책이다.

재수를 해서 80학번이 된 그는 1980년 '서울의 봄'을 지나고 이 책을 수십번 읽었다. 그 시절 그의 가방 속에는 늘 이 책이 들어 있었다. 다시 읽을 때마다 그는 김수영의 시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다. 세계는 저만치 절연됐고 그는 그 안에서 행복했다. 그리고 울었다.

"김수영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. 정말 바람보다 먼저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서는 것들이 있더라구요.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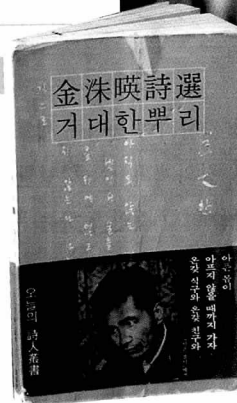
그 시절 그는 전경들의 방패를 보며 '깎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구나' 하며 절망감에 치를 떨곤 했다. 왜 자신과 같은 세대들의 가슴속에 지워지지 않는 슬픔의 정서를 심어줬는지 김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묻고 싶단다.

"김수영의 시는 자유를 노래하지만 그 자유는 슬픔과 함께 있는 자유예요. 그리고 그건 마치 제 가슴속에 늘 있는 어떤 것처럼 느껴져요. 어느 날 문득 산을 보고 '너 여전히 그 자리에 있구나' 하고 깨닫게 되는 것처럼."

슬픔이 그를 떠나게 하는지 모른다. 슬픔이 그를 히말라야 오지에 은둔해 있는 티베트의 하이 라마를 찾아가 "전생에 제 스승이 아니었냐"고 묻게 하기도 하고, '이것이 죽는 거구나' 생각하면서도 아마존 정글 속을 헤매다니게 하는 것이다.



"김수영의 시는 자유를 노래하지만 그 자유는 슬픔과 함께 있는 자유예요. 그리고 그건 마치 제 가슴속에 늘 있는 어떤 것처럼 느껴져요."



슬픔들은 그러므로 그가 직업을 핑계로 누리는 자유 속에 늘 포함돼 있다.

SBS 자연다큐멘터리 《버섯》을 마지막으로 김씨는 방송작가 생활 10년을 청산했다. 그 뒤부터는 문명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오지로 카메라를 메고 떠돌아다닌다. 그가 그의 작품에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간이다. 지난해 KBS 《인간극장》 '소방관 아빠의 마술인생'을 제작하는 동안 주인공과 싸워가면서 "인생의 한 고비를 함께 넘어가보자"고 제안한 것도 김씨의 '자유와 슬픔'이 향한 곳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다.

아리랑TV에 곧 그의 이름을 단 프로그램이 방영될 예정이고, SBS 특집을 준비하러 올해 안에 남극으로 떠날 것이다. 남극으로 가면서 그는 김수영의 〈풀〉의 한 구절을 가슴에 꼭 품고 갈지 모른다. "풀이 눕는다 /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/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/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." — 김장근 기자

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

한결같은 마음으로 북디자인에 전념해온 디자인파트너 다름기획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다름과 함께할 가족을 찾습니다.



■ 모집 분야

- 문화 · 관광 관련 분야 기획자(경력자 및 신입가능)
- 총무겸 맥 오퍼레이터

■ 자격요건

- 기획자
3~5년 이상 경력자 우대(신입가능) / 외국어 능통자 우대 / 문화 · 관광 기획 경력자 우대
- 총무겸 맥 오퍼레이터
상고졸이상 여사원 / 매킨토시 사용 가능자 / PC 사용 가능자

■ 제출서류

- 1차: 이력서(사진첨부, 이력서 상단에 희망 연봉 표기) 및 자기소개서(경력중심으로 서술)

- 2차: 면접(직접 내사) 및 포트폴리오 심사(기획자에 한하여 본인 기획물의 기획서)

■ 마감 및 접수

- 마감: 4월 20일
- 접수: 이메일 darumman@yahoo.co.kr

※면접시 자필 자기소개서 지참(서류접수 후 면접일은 추후 개별 통보)

dp design partner **darum**

다름

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64-65 K&J빌딩(2F)
TEL 02_325_6260_1, FAX 02_325_0944